익산시, 도시 안전망 강화한다

'다이로움 스마트 안전빌리지' 사업 추진… CCTV통합관제센터 중심 첨단시스템 구축

익산시가 인공지능(AI) 첨단 기술을 활용해 안전도시를 조성한다.

익산시가 인공지능(AI) 첨단 기술을 활용해 안전도시를 조성한다.

익산시는 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다이로움 스마트 안전빌리지'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스마트 안전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5억6,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시비 2억4,000만원을 더해 총 8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빌리지'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스마트도시통합플랫폼과 연동해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익산안심이앱서비스 △인공지능(AI)기반 CCTV 영상 검색 시스템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이다.

우선 '익산안심이앱'은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안전귀가를 돕는 모바일 서비스다. 이 앱을 켠 상태로 귀가 시 위급 상황임을 알리면 신고자의 위치가 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 이와 함께 안심비상벨이나 지구대, 안심택배함 등 관련 시설물 위치 정보도 제공된다.

'인공지능기반 CCTV영상 검색 시스템'은 치매환자와 아동 실종 시 인상착의와 사진 정보를 입력하면 익산시 전역에 설치된 CCTV영상을 분석해 실종자의 이동 경로와 현위치를 신속하게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골든타임 내에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은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로 객체를 인식하고 분석해 화재, 쓰러짐 등 다양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감지하는 사업이다. 해당 영상을 관제센터 상황판에 자동으로 표출해 위급상황을 관제요원이 모니터링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우범지역이나 여성 안심 귀갓길부터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고 점차 시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김민수 기획안전국장은 "모든 시민의 안전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누구나 체감 가능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실시

벼 품종·병해충 예방·농약 안전사용 등 농업 현안 관련
10~18일, 농업인 1000여명 대상 12개 읍면동 순회교육

군산시는 본격적으로 '202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한다.

5일 첫 교육은 노형일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장을 초빙해 기후변화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질적인 재배 기술 방안을 다루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5 농업정책방향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기술 △지역별 영농문제 발생 사례 등이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작물 생육과 병해충 발생 양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지속 가능한 농업실천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5일 교육을 시작으로 10일부터 18일까지 12개 읍면동에서 농업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주요 농업 현안 교육이 진행된다.

순회 교육 일정은 총 12회로 △10일 옥산면·임피면 △11일 농촌동 △12일 회현면·성산면 △13일 옥구읍·옥서면 △14일 미성동·대야면 △17일 개정면·서수면 △18일 나포면 순이다.

실용 교육에서는 지역 적응 가능한 벼 품종, 병해충 예방, 농약 안전 사용 등 농업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상고온 기후로 증가한 이화명충에 대한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를 통한 벼의 피해율을 감소하고, 작목별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외에도 교재와 홍보영상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용,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저탄소 농업실천 기술, 2025년 전략작물 직불제 변경 및 농가 소득보전 지원 사업(맞춤형 비료 등)도 함께 홍보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할 수 있게 맞춤형 과학영농기술 교육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황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농업인들의 대응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실용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최신 농업정보를 습득하고,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수산업·어촌·수산식품산업 지원 사업 접수

군산시가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있는 어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시는 경쟁력 있는 수산업, 어촌활력 도모, 수산식품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오는 3월 5일까지 '2026년도 정부지원 수산업·어촌·수산식품산업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친환경 어구 보급 △어촌발전기반 조성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육성 등 수산업·어업·어촌분야 정부 지원 사업 등이다.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식품가공업자 등 사업지침에 지원 자격이 명시된 군산시민으로 군산시 어업정책과, 수산산업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누리집 www.gunsan.go.kr),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국고보조금정보·보조금사업정보)을 참고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교원 치유힐링 프로그램 1차 운영 성료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선도지역 사업으로 추진한 '1차 교원 치유힐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지역 교원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교원 치유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거버넌스 조직인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주관으로 전라남도 장흥통합의료병원(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진행됐다.

주요 활동으로 차훈명상, 아로마 치료, 산림 치유, 한방 교육 등 다양한 체험을 운영했다. 시는 1차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오는 2차(6~7일), 3차(20~21일)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영세소상공인 경영 부담 덜어준다

임대료 30만원·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10일부터 신청

군산시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기존 사업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작년보다 지원금액을 20만원 늘려 시행할 계획이다.

2025년 총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2023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2024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전년도(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총사업비는 16억 5,500만원이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며, 임대료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단, 공고일인 2025년 2월 5일 이전 휴·폐업 혹은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나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원대상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0일부터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군산시청 누리집 접속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으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월 10일에는 끝자리 3·8 △11일에는 4·9 △12일에는 0·5 △13일에는 1·6 △14일에는 2·7이다. 15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으로 전화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오임선 익산시의원, 적극적 노력 '결실' 어양동 송전탑 지중화로 주민숙원 해결

부송4지구 구간 지중화 연계 추진…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 예정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어양동)이 추진해온 영등중학교 인근 변전소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오는 2025년 6월 완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랜 기간 표류하던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어양동 지역구를 둔 오임선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평가된다.

1998년 영등변전소 준공 당시 주거시설이 없었지만,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영등중학교가 들어서면서 3,000여 명의 주민과 학생들이 송전탑 인근에서 생활하게 됐다.

특히, 놀이터와 학교 운동장이 송전탑과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전자파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

2017년 어양동 동도미소드림아파트 주민 340명이 영등변전소 이설요청 진정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지중화 사업에 대해 익산시, 전북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중화구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성사되면서 송전탑 4개를 철거하고 1.4km 구간의 고압 송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오 의원은 "현재 영등중 송전선로 지중화 부분은 완료됐으며 단절된 송전탑이 올해 6월까지 철거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과정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익산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익산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 신고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연 2회 의무로 받아야 한다.

부숙도 검사 신청자는 퇴비 더미 중 5~10군데에서 2kg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 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분뇨분석실에 방문·의뢰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급과 가축분뇨분석실(063-859-4984, 498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